



## 學과 術의 死角

孫 哲

### 올바른 것을 밝혀 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넌** 픽션  
병리학교실(病理學教室)이라는 책이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심오한 학문의 전문서적이 아니라 병리학을 담고 가는 어떤 대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을 살살이 파헤쳐 엄청난 사실을 들춘 내용이었다. 학생 때 읽은 기억이라서 즐겨리조차 기연미연 어쩔까 꾸로인지도 모를 지경이나, 주인공은 흔히 있는 학자 타입에 걸맞은 외골에다 웅고집인 주임교수이고 쓴 사람은 갓 입국(入局)하여 그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순박한, 풋나기 의학사였다.

애기인즉 생쥐에다 여러가지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주면서 그들의 죽살이를 가늠하고 판가름하는 동물실험에 관한 것이었다. 교수의 영감(靈感) 아니면 아이디어랄까 혹은 신념(信念)에 의해 생각해 낸 방법대로를 수십마리의 생쥐에 가하면 상당시간후에는 죄다 죽게 되어있고 그 원인이나 이유를 병리조직학적으로 규명한다는 연구테마였다.

젊은 연구수는 교수의 처방과 스케줄대로 일정한 시간에 걸쳐 밤 늦게까지 차곡차곡 실행해 놓고 다음날 새벽 일찌기 생쥐를 디려다 보았으나 이상하게 한 마리도 죽지는 커녕 눈들만 말뚱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교수의 출근을 기다려 예상밖의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였는데

처음이라 그랬던지 빙그레 웃으면서 보  
다 실험의 정확을 기해보라면서 고분고  
분 어르듯 타일러주었다. 그러나 생쥐들  
이 죽지않는다는 똑같은 결과보고를 되  
푸리는 동안 사정은 점점 달라졌다.

급기야는 벌칙 성질을 내며

「바까야로(바보) / 그럴리가 없어」

육살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두  
들기곤 하는 것이었다. 그때만도 지금과  
는 또 달라 한 교실의 주임교수라면 가  
위 독재국가의 원수 부럽지 않았다. 그  
만큼 그런 날은 온종일 교실 전체가 시  
켓말로 저기압에다 먹구름이 휘덮은 분  
위기가 되고 마는 형편이었다. 뜻을 잃  
고 풀죽은 젊은 의학사는 건디다 건디다  
못해 마침내 생쥐를 모조리 목졸라 죽이  
고는 단숨으로 달려가 말쑥대로 몽땅 죽  
였습니다. 시근덕거리는 거짓 보고를 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보게 이 사람」

특의만면하는 스승을 멀끄름히 치어다  
보고 서있는 허탈한 어린 제자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버젓하게  
학계에 보고되고 유명학자의 주장(主張)  
인지라 누구 하나 추시(追試)해 불경황  
도 없이 새로운 학설로 어엿하게 행세하  
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 상아탑의 말세를 고하는 충격적  
인 현실 폭로였다.

## ● 픽 션

작 자-미상.

때 -지금으로부터 35~45년 전.  
주인공-50세 안팎 반백의 의학박사,

---

올바른 것을 밝혀 내려는 용기는 그리고  
그릇된 짓을 양으려는 양심 없이 참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을 밖에 없는 것이  
다.

목숨보다 소중한 여기려는 인간의 정직  
(正直) 없이는 영겁불멸의 진리라 할지  
라도 영원토록 깃들지 못할 것이다.

---

유명 외과병원장.

줄거리-맹장염...바르게는 충양돌기절  
제-수술을 5분 내에 번개처럼 해치운  
다는 고도의 기술과 학식을 겸비하고 있  
다는 소문이 널리 수백리 밖에까지 퍼져  
방방곡곡에서 몰려드는 환자가 문전성시  
(門前成市)하고 있다. 하루에 많을 뎨  
열명도 넘고 적어도 다섯은 맹장수술을  
해치우느라 점심을 걸르기가 일쑤인 나  
날이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달과 해  
가 지나고 또 지나는 동안 어찌다 장마  
가 들거나 눈사태때문에 길이 막히게 되  
면 사나흘씩 환자가 끊기고 따라서 수술  
이 없는 날이 생긴다. 언제부턴지 모르  
는 사이에 수술 케이스가 한명도 없는 날  
이 며칠이고 지속되면 원장은 솟제 탄 사  
람처럼 되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성깔이  
거칠어지며 팬스레 심통을 부리고 기물  
을 부수면서 간호부든 누구든 들들 볶아  
대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아마도  
수입이 떨어지는데 대한 부아통이리라 그  
만큼 벌었음 됐지 하는 정도 소근대는  
입방이었다. 그러다도 환자가 나타나 수  
술만 하게 되면 거짓말처럼 체통을 갖추  
게 되고 위엄있는 전 원장으로 되돌아오  
는 것이다. 이런 꼴을 몇번이고 되푸리

당하는 동안 그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수술조수(助手)가 드디어는 빗인가를 깨닫기에 이른다.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는 다음 메스로 환자의 배를 갈라 거기서 흐르는 피가 손에 묻는 순간 원장의 변덕스런 굳은 표정이 영화배우처럼 화려한 표정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듯 굶주린 이리와의 같이 미쳐버린 한 의사를 치료하기 위한 선지피를 얻기 위해 성한 환자의 배는 자꾸만 자꾸만 갈려져야 했고 못내는 그 조수마저 수술대에 올라가게 된다는 장면으로 애기는 끝맺는다.

체호프의 정신과병동과도 같은 치료하는 자와 받는 자가 뒤뉘이고 있는 슬픈 에피소드인 것이다.

며칠전 한 의사가 의사인 내게 이런 루머?를 귀뜸해 주었다.

남의 골통을 밥먹듯 까뒤기는 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벗들과 어울려 오랫동안 모처럼 마신 술이 과해 그만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어느 새 자기 골통이 까져있더라는...

올바른 것을 밝혀 내려는 용기 그리고 그릇된 짓을 얹으려는 양심없이 참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을 밖에 없는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여기려는 인간의 정직(正直) 없이는 영겁불멸의 진리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잊들지 못할 것이다.

(필자=전남의대 명예교수·의박)

## 생활정보

### 보일러 손질 보관법

#### ● 연탄보일러

우선 철술과 방청유를 준비한다. 철물점에 가면 두가지 다 구입할수 있다.

보일러의 뚜껑과 화덕을 들어낸뒤 보일러안의 가열면을 깨끗이 긁어낸다.

연탄이 탈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인 아황산가스·탄산가스·산화질소·암모니아등이 보일러의 가열면이나 수실벽의 금속재료를 부식시키고 가스응결덩이가 부착, 열전도효과를 감소시켜 보일러의 열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청소할때는 화덕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화덕이 깨졌거나 금이 갔으면 '열'자 표시가 있고 두께 2cm이상

의 내화물로 제작된 새것으로 교체해야한다. 금속제 화덕도 마찬가지로 부속에 이상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

소제한 보일러는 방청유를 칠해줘야 한다. 연탄보일러의 수명이 3년정도밖에안되는 이유는 보일러가 가동될 때는 유독가스가 전열면인 철판을 부식시키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철판이 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일러를 청소한 뒤엔 반드시 방청유를 충분히 발라줘야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煙道와 굴뚝도 말끔히 손질해야 한다. 보일러의 배기가스중에 포함된 황분과 수분등이 보일러에 붙은 연도와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도중 덩어리로 굳어져 가스 배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